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파구-삼삼일일

### 2025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 (녹) 연중 제5주일

2025년 2월 9일 (제2120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일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 6,1-2,7.3-8

####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코린토 1서 15,1-11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5,1-11

####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부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성가]	8시	입당	337	봉헌	340	성체	167	파견	345
	11시	입당	4	봉헌	216	성체	182, 172	파견	34
연중 제5주일	2월 9일(주일)		2월 11일(화)	2월 12일(수)	2월 13일(목)	2월 14일(금)	2월 1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황혜정 데레사	김미숙 말가리다	정미경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장희숙 루시아	이은자 마트로나	안나 요아킴회		
독서	정일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글라라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안나 요아킴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가브리엘라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못한 우리 입술과 강하지 못한 우리 손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을 성령으로 이끄시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세상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 **2월15일 토요일 미사전례** - 안나 요아킴회  
\*미사 후 안나요아킴회 2월 생일 축하식과 점심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2월 성경 통독** - 필립 1,1-2.30

■ **2월 교중미사 특별 강론**  
- 예수회 문영균 요한 수사  
- 이냐시오 관상기도 및 성찰을 통한 주일 복음이해

■ **장례미사**  
- 고 김정희 올리엠타 장례미사: 2월 12일(수), 오전 10시, 성당  
- 하관예절: Gate of Heaven, 오후 12시30분

■ **연도 안내**  
- 2월 9일(일) 미사(8시/11시) 중에 고 이용 요셉 영혼을 위한 1주기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는 제2양식 창으로 바칩니다.  
- 2월 15일(토) 오전 11시 미사 후에 고 김정희 올리엠타 영혼을 위한 연도와 문상이 있습니다.  
- 2월 16일(일) 고 김영자 세실리아  
- 2월 23일(일) 고 박진영 베드로

■ **모임 및 회의**  
- 성모회 : 2/13(목) 저녁 8:30 ZOOM  
- 샌리앤드로: 2/9(일)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라모린다 : 2/9(일) 교육관 107호  
- 프리몬트 : 2/9(일) 교육관 201호  
- 오클랜드 : 2/16(일) 교육관 106호

■ **2025년 상임위원 회의**  
- 상임위원 : 재정분과위원장, 평협회장, 총구역장, 사무장, 빈첸시오회장, 사목회장  
- 일시 : 2월 9일(일), 오후 2시

■ **북가주 성가 나눔**  
- 북가주 6개 성당 성가 나눔 행사가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 일시 : 3월 8일(토), 오전 11시 - 오후 1시  
- 북가주 성가 나눔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 **청년회**- 오늘 청년회가 대건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밥나눔 안내**  
- 메뉴 : 만둣국(염파트리샤), 소고기무우국(이아네스), 불고기(송아네스), 비지찌개(이베로니카), 고등어조림(이마트로나), 북역국(차리디아), 자장밥(밥나눔회), 찹쌀케익(권마가렛), 아이스크림과 과일(학부모)  
- 밥나눔을 원하시는 구역은 총구역장에게 연락주세요.

■ **공동체 기도 지향**  
-리치몬드 구역 천 아네스 부친 변스테파노 (천중욱 다니엘 장인, 산호세 교우) 형제님선종하셨습니다. 다음주 금요일까지 공동체지향 기도는 고 변 스테파노 영혼을 위해 바칩니다.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사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문, 이은자마트로나, 손한석가브리엘, 김옥자마리아, 유낙양베로니카, 장민우,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출리울리안나, 조지현안젤라, 강시구안드레아,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조진행바실리오, 김혜숙아네스

■ **대건회 동계 수련회**  
- 날짜 : 2월 21일(금)-2월 23일(일)  
- 장소 : Lake Tahoe,  
\* 대건회 동계 수련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금보고자료**  
세금보고자료는 사무실로 신청해주시시오.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⑤ 히터 사용 후에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혼인갱신식을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스킨라스티카 (2/10)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연중 5주일

예수께서는 겔네사렛, 즉 갈릴래아 호수에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루카는 안드레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첫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제자가 필요한 이유는 하느님의 백성을 모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발이요, 만민에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이며, 모든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팔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카파르나움과 타브가 사이에 있는 만에서 베드로와 동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마치 자연적으로 형성된 원형극장과 같아서 아래서 말하면 위에 있는 많은 군중에게 의사 전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밤새 소득 없이 돌아온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치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의 벳사이다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목수로서 생활해 오시던 분으로서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이미 태양이 눈부시게 비추는 시간에 그물을 치라뇨. 당시의 그물은 세마포를 꼬아 만들어서 해가 뜨면 물속에서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허탈감과 피로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껏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들고 호수로 나갑니다. 루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웬지 그분을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밀쳐봐야 본전이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밤새 허탕 친 것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행할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사도 2,41; 4,4)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분 앞에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도 하느님 앞에서 "큰일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이사 6,5)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물고기는 낚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낚이면 삽니다.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 ζωγράφω는 생포한다는 뜻인데, 70인 역 성경에서는 사람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느님의 신성하고 고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영광스럽게 초대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시는 하느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루카는 예수님을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로 묘사하는 유일한 복음사가입니다.(5,1) 그리고 루카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에서 제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일을 이어감을 전합니다.(사도 6,2)

하느님의 말씀은 율법, 예언자의 선포 등을 가리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자비의 하느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느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또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 선포에 필요한 용기가 부족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가톨릭신문]

###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9명	150명	189명

주일헌금		교무금	청년 영어미사	감사 헌금	선교	성소	혼인 갱신식	황금빛여 행	빈첸시오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아룡(1-2), 김원덕(2), 최몽열(2), 이명국(2), 이명란(2), 임병선(1), 신공진(1-3), 이육경(2), 조용숙(2), 황현숙(1-3), 임윤택(1)				김알렉스	이육경	이명란 임윤택	전완수, 이범준 이영길, 이순열, 조현석	이육경 본당신부님	김영희, 이명란 이육경

